

수형자의 교도소 내 규율위반 : 교도소화의 적용과 자기통제이론에 근거한 재해석*

민 수 흥**

국 | 문 | 요 | 약

수형자의 규율위반을 교도소화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의 관점에서 각각 검증하고 비교하였다. 싸이크스(Sykes, 1958)에 따르면, 구금의 고통에 직면한 수형자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적응양식을 택할 수 있다. 하나는 교도소화이론으로 예시되어지고 다른 하나는 자기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 수형자들은 구금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동료 수형자들과 상호원조, 충성심, 애정과 존경으로 단결하고 교도관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립하게 되어 이들의 규율위반을 수형자의 집합적(collectivistic) 대처로 볼 수 있다는 교도소화이론은 본 연구에 의해서 지지되지 못했다. 이와 달리 수형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도소/관에 대항하고 동료 수형자를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들의 규율위반을 개별적(individualistic) 대처로 볼 수 있다는 적응양식은 자기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재해석되었고 경험적 지지를 얻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수형자의 규율위반에 대한 하위문화이론적 설명은 경험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자기통제이론의 설명은 경험적 지지를 얻었다. 수형자의 규율위반에 대한 통합이론적 접근이 범죄이론 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 주제어 : 수형자, 규율위반, 교도소화, 자기통제력

* 본 연구는 2010학년도 경기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교수, 사회학 박사

I. 서론

1. 문제제기

교도소에 대한 진정한 의미의 과학적인 연구는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연구자들은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교도소를 직접 방문하여 참여관찰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특히 사회학자들은 교도소 내부의 질서유지에 관심을 가지고 교도소 내의 혼란을 수형자들의 하위문화를 가지고 설명하였다.

싸이크스(Sykes, 1958)는 뉴저지 주의 트렌튼(Trenton state prison)에 위치한 중구금(重拘禁) 남자교도소를 연구하였다. 그는 교도소라는 갇힌 사회(the society of captives)를 수형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중구금 교도소에서의 삶은 극도의 박탈과 좌절(p. 63)”이라고 기술한다. 수형자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재화와 서비스, 이성과의 성적 관계, 자율성과 안전을 박탈당한다. 구금의 고통은 수형자의 삶에 위협이 되고 그들의 자아에 대한 심각한 공격으로 여겨지게 된다. 위협과 공격에 처한 수형자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구금의 혹독함을 제거하려고 시도하거나 수형자들 간에 형성된 사회적 상호작용 양식을 통해서 고통을 경감시키려 노력하게 된다. 싸이크스에 따르면 수형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고통스러운 교도소 생활에 대처하게 된다.

한편으로 수형자는 동료 수형자들과 상호원조, 충성심, 애정과 존경으로 단결하고 교도관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립을 시도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수형자는 다른 수형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구애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들어 갈 수 있다(Sykes, 1958: p.82).

싸이크스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수형자들은 구금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수형자 집단의 단결을 통한 집합적(collectivistic) 대처를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료 수형자를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개별적(individualistic) 대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대처방식을 범죄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전자는

극단적인 어려움에 처한 수형자들이 집합적 해결책을 찾아 총체적 집단(total institution)에 적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하위문화를 형성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구금의 고통에 처한 수형자들이 단체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응을 시도하는 부분은 긴장이론으로 설명이 되고 그렇게 형성된 교도소화라는 하위문화가 수형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위문화이론 혹은 사회학습이론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반면에 후자는 고전주의 범죄학의 효시로 꼽히는 홉스의 시각과 유사하여 고전주의적 기본 가정 위에서 발달한 통제이론의 시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수형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저지르는 규율위반을 설명하되 싸이크스가 제시한 수형자들의 대처방식 두 가지 가운데 어느 방식이 더 경험적으로 지지를 받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수형자들의 규율위반이 그들의 교도소화에 의해 설명되는 것인지 아니면 수형자들의 욕구가 억제되지 않은 결과로 규율위반이 나타난다는 자기통제이론에 의해 설명되는 것인지를 경험적 자료를 분석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의의

이 논문은 먼저 수형자들의 교도소 내 규율위반이 교도소화로 설명된다는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려 한다. 교도소화의 주장은 미국에서 되어진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경험적 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킨스(Hawkins, 1976)는 교도소화에 대한 연구결과가 명확하고 결정적인 결과를 산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교도소화의 주장이 한국 자료로부터 어떠한 경험적 지지를 얻는지 연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교도소화의 주장에 대한 다변인분석이 국내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라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국내에서 일기 시작한 경험적 연구의 열기를 이어가는 의의도 있다(민수홍, 2009a; 2009b; 윤옥경, 2010).

국내에서 발표된 연구 가운데 교도소화와 수형자의 규율위반을 검증한 논문으로 는 한 편을 찾을 수 있다. 윤옥경(2010)은 교도소화에 대한 서로 다른 설명들 즉 박탈모형과 유입모형을 통합하여 수형자들의 규율위반을 설명함으로써 설명력을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싸이크스가 제시한 수형자의 두 가지 서로 다른 선택은 수형자를 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에 기초하고 있어서 과연 이 둘을 통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구금의 고통에 직면한 수형자들이 “집합적”으로 반응하여 그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들어 대처하는 경우에는 수형자들이 교도관과 세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자기들끼리 단합하여 대결하는 모습에서 매우 조직화된 모습으로 그려지는 데 반하여 수형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수형자 사회가 해체된 상태에서 각자 자신의 생존과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과 “자신의 힘과 노력 이외에는 어떠한 안전대책도 존재하지 않는(Hobbes, 1958[1651]: p.107)” 고독하고 잔인한 인간의 모습이 그려진다. 이 논문은 수형자들의 규율위반을 설명함에 있어서 서로 다른 시각에 기초한 설명들을 통합하기보다 각각의 설명이 근거하고 있는 이론들을 대립적으로 제시하고 검증하여 이론의 발전에 일조한다는 의의를 갖는다(Hirschi, 1979).

II. 이론적 논의

1. 교도소화이론

교도소화는 수형자들이 구금기간 동안 경험하는 물리적이고 사회적인 어려움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난 자체적인 재사회화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교도소는 애초에 사회복귀를 의도하는 재사회화를 강조하지만 수형자들은 구금의 고통 속에서 교도소화라는 반사회적 재사회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교도소화라는 수형자들의 하위문화가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는 코헨(Cohen, 1955)식의 긴장이론에 근거한 설명이 가능하다. 코헨은 중류계층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학교에서 지위박탈과 좌절을 경험하게 된 하위계층의 남자 청소년들이 집합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면서 비행의 하위문화가 생겨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류계층의 기준과 반대되는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가치에 입각한 하위문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자기들끼리 지위를 부여하여 박탈과 좌절을 극복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싸이크스는 구금의 고통에 직면한 수형자들이 동료 수형자들과 서로 돕고 단결할 것과 교도관들과 바깥세상을 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립하도록 요구하는 하위문화를 만들어 교도소 안에서 집단적인 문제해결을 지향한다는 것이다¹⁾.

수형자 규범에 근거한 교도소화는 통상적인 사회의 가치를 부정하고, 교도관에 대해 대립하도록 요구하고, 동시에 수형자 집단 내부에 대해서는 충성과 단결을 강조하게 된다(Wheeler, 1961). 교도소화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클레머(Clemmer, 1958)는 교도소화의 결과로 수형자들이 더 세련되고 정교한 범죄수법을 학습하게 되고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재통합 프로그램의 효과를 무력화 시킨다고 주장한다. 자연스럽게 교도소화의 영향이 클수록 수형자들은 교도소 복역 중에 교도소나 교도관에 대립하여 교도소 내부에서 부정행위와 폭력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교도소화는 교도관으로 대표되는 외부집단에 대해 공격적이고 착취적인 관계를 강조하지만 수형자 내부 집단에 대해서는 충성과 단결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교도소화가 강할수록 동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유해행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Sykes and Messinger, 1960). 또한 수형자들은 교도소화를 통해서 좌절을 이겨낼 수 있고,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어 스스로를 훼손하는 행위를 피할 수 있게 된다(Sykes, 1958; Sykes and Messinger, 1960).

2. 자기통제이론

갓프레드슨과 허쉬(Gottfredson and Hirschi)가 1990년에 범죄의 일반이론(A General Theory of Crime)을 출간하면서 제시한 자기통제이론은 허쉬의 이전 이론인 사회통제이론과 더불어 범죄학에서 유력한 인과적 이론으로 발전하였다(Akers and Sellers, 2009). 자기통제이론은 고전주의 범죄학이 그리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본가정 위에 확립되어 있다. 단기적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타고난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사회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었던 홉스의

1) 서덜랜드(Sutherland, 1937)는 전문 절도범들의 경우 교도소 구금과 별개로 자발적이고 내재적인 충성심을 지니고 있어서 동료에 대한 배신을 가장 악한 행동으로 규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교도소화는 전문 절도범들이 갖고 있던 하위문화가 교도소 안에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관을 받아들여 허쉬는 도덕과 관계없는(amoral) 존재인 인간이 훈육을 통해서 도덕성을 갖게 된다고 이해한다. 갓프레드슨과 허쉬는 어려서 가정을 중심으로 한 훈육을 통해 단기적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타고난 경향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비행과 범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역으로 제대로 훈육되지 못해 자기통제력이 형성되지 못하면 다양한 비행과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허쉬의 이론이 갖는 또 하나의 가정은 공통의 가치 체계(common value system)이다. 허쉬는 문화일탈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범죄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하위문화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핵심적인 가치와 규범을 알고 받아들이지만 이것을 위반한다고 한다. 허쉬(Hirschi, 1969)는 사회통제이론에서 공통의 가치체계를 믿고 받아들이는 정도에서의 차이로 비행과 범죄의 수행을 설명한다.

갓프레드슨과 허쉬의 자기통제이론을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들에게 적용해 보면, 수형자들 사이에도 스스로 욕구를 통제하는 능력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자기통제력이 낮은 수형자일수록, 특히 교도소라는 박탈적 환경 속에서, 교도소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할 것이다. 또한 수형자의 자기통제력이 낮아 근시적인 욕구충족을 추구할수록 동료 수형자들에게 속임수와 완력을 행사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교도소에서 경험하는 좌절과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장기적인 손실을 고려치 못한 채 자기 자신을 훼손하기 쉬울 것이다.

3. 연구가설

앞에서 살펴본 교도소화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수형자의 교도소 내 규율위반에 대한 가설을 각각 도출해 보았다.

먼저 교도소화이론의 관점에서 가설을 도출해 보면,

가설 1) 교도소화는 교도관으로 대표되는 외부집단에 대해 공격적이고 착취적인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수형자의 교도소화 수준이 높을수록 수형자들은 교도소 복역 중에 교도소나 교도관에 대립하여 교도소 내부에서 부정행

위와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가설 2) 교도소화는 수형자 자신의 가치를 지켜주고 수형자 내부 집단에 대해서는 충성과 단결을 강조하기 때문에 수형자의 교도소화 수준이 높을수록 교도소 복역 중에 자기 자신이나 동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유해행위는 적게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자기통제이론의 관점에서 가설을 도출해 보면,

가설 3) 수형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손쉽게 즉각적인 욕구충족과 해소를 위해 교도관에 대항하거나 교도소가 부과하는 규정을 위반하기 쉬운 것이다.

가설 4) 수형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고통과 좌절을 참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훼손하거나 동료 수형자들에게 속임수와 완력을 행사하기 쉬운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자료 및 분석방법

이번 연구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관계자들이 2004년도에 안양, 대전, 대구, 광주, 마산 교도소와 청주 여자교도소에서 설문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에는 경기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도에 위치한 교도소가 포함되어있어서 대략적인 지역 대표성을 갖는다. 2004년 9월 1일부터 8일간 연구책임자와 조사보조원이 교도소를 방문하여 수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6개 교도소에서 모두 413명이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이 가운데 상당수의 문항에 응답하지 않거나 응답내용이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된 54명을 제외한 359명(86.9%)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조병인, 원혜욱, 민수홍, 이경재, 2004).

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는 SPSS for Windows(Version 18.0)를 사용하여 분석하

였다. 먼저 교도소화의 하위체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번 연구에 포함된 변수들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수의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알아보았다. 최종적으로 수형자들의 교도소 내 규율위반이 교도소화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통제력 때문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주요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 수형자의 규율위반

교도소화 이론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수형자의 규율위반을 그 대상이 교도소나 교도관인 것들과 수형자 자신이나 동료수형자인 것들로 나누었다. 응답자가 설문조사 이전 6개월 동안 저지른 규정위반 중에서 교도소나 교도관에 대항한 위반으로 ①소리를 지르거나 쪽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연락하기, ②작업태도 불량, ③교도관에 대한 반항, ④물품부정 소지 또는 제작, ⑤교도관에 대한 폭행, ⑥도주 또는 도주 시도, ⑦동료수형자와 합의에 의한 동성애를 선정하였다. 이상의 7개 문항의 응답범주를 ‘없다’와 ‘있다’로 리코딩하여 만든 지수의 신뢰도는 .68로 나타났다. 수형자 자신이나 동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위반에는 ①동료 수형자 폭행, ②자해행위 또는 자살 시도, ③근거 없는 말로 남의 명예를 손상시킴, ④동료 수형자를 동성애에 강제로 끌어들이는 포함되었다. 이상의 4개 문항으로 만든 지수의 신뢰도 역시 .68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가. 교도소화

오히린(Ohlin, 1956)에 따르면, 교도소화의 근간이 되는 수형자 규범은 통상적 가치를 부정하는 범죄적 가치, 교도관에 대한 대립, 수형자 간의 충성과 단결로 특징지어진다. 길레스파이(Gillespie, 2003)는 교도소화를 하나의 합의로 특징짓기 어렵고 다수의 하위체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교도소화를 수형자 간의 충성과 단결, 교도소와 교도관에 대한 대항, 통상적 가치의

부정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표 1〉 교도소화 측정 문항들의 주요인 분석결과

문항	요인 적재값			평균값
	F1	F2	F3	
1. 수형자 최씨와 김씨는 친한 친구사이다. 최씨는 방문객을 통해 몰래 돈을 들여왔는데 교도관이 의심하는 것 같다. 그래 김씨는 최씨의 부탁을 받고 그 돈을 몇 일간 숨겨주었다.	.24	.76	.08	1.68a
2. 도주를 계획하던 수형자 김씨와 이씨는 수형자 박씨를 위협하여 공구를 몰래 구해오게 했다. 박씨는 공구를 구해오다 발각되어 도주 혐의를 받게 되었다. 박씨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처벌을 받았다.	.00	.84	-.01	1.84a
3. 교도소에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니면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12	-.08	.72	2.74b
4. 가석방으로 일찍 출소하고 싶으면 당신의 느낌을 솔직히 말하지 말고 교도관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	.01	.34	.64	2.66b
5.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교도관들에게 이야기 하는 수형자는 나약한 사람이다.	.12	-.02	.68	1.97b
6. 내가 잘못된 것은 재수 없게 잡혔다는 것뿐이다.	.60	.28	.20	1.74b
7.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77	.03	.08	1.30b
8.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살기 어렵다.	.78	.04	.05	1.82b

F1의 eigenvalue=2.25; 설명력/적재값=28.13%

F2의 eigenvalue=1.21; 설명력/적재값=15.15%

F3의 eigenvalue=1.10; 설명력/적재값=13.73%

a: 1=매우 잘못된 일이다, 2=대체로 잘못된 일이다, 3=대체로 잘한 일이다, 4=매우 잘한 일이다.

b: 1=절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대체로 그렇다, 4=확실히 그렇다.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교도소화의 측정에 사용된 문항 중에는 휠러(Wheeler, 1961)가 수형자를 평가하기 위해 만든 삽화(vignette)도 포함되었다. 이것은 초기 교도소화 연구가 교도소에서 질적 참여관찰에 의존하던 데서 벗어나 양적 연구를 가능하게 만든 의미 있는 측정도구이다. 앞에서 기술한 3가지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선정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8개의 문항에서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수형자간의 단결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표 1>에 제시된 삽화 2개가 선정되었고, 교도소와 교도관에 대한 대항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교도소에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아

니면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가석방으로 일찍 출소하고 싶으면 당신의 느낌을 솔직히 말하지 말고 교도관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해야 한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교도관에게 이야기 하는 수형자는 나약한 사람이다”의 3 문항이 선정되었다. 통상적 가치의 부정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내가 잘못된 것은 재수 없게 잡혔다는 것뿐이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어리석다,”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는 살기 어렵다”의 3문항이 선정되었다. 이상의 하위 체계별로 각각 선정된 문항을 단순 합산하여 지수를 구성하였다 (<표 1>참조).

나. 가족 접견 횟수

수형자의 가족접견 횟수는 “귀하의 가족들은 지난 3개월 동안 몇 번 접견(면회)을 왔습니까?”를 사용하였다. ‘한 번도 접견하지 않았다’부터 ‘5번 이상’까지 6 등급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다. 이번 범죄로 인한 복역기간

“귀하가 이번 범죄로 인하여 교도소에서 생활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의 질문에 답한 응답을 개월 수로 전환하였다. 복역기간에는 구치소 기간도 포함시켜서 답하도록 하였다.

라. 친한 동료 수형자 유무

수형자에게 친한 동료 수형자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개인적인 문제를 터놓고 얘기하는 친한 동료 수형자가 있습니까?”를 사용하여 ‘없다’를 ‘0’, ‘있다’를 ‘1’로 처리하였다.

마. 사회인구학적 변인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성별, 교육수준, 가구 총 수입액, 나이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자를 ‘1’, 여자를 ‘0’으로 처

리했으며, 응답자인 수형자의 교육수준은 “귀하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의 질문에 대해 초등학교 졸업이하, 중학교 졸업 또는 중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 초급대학 졸업 또는 중퇴 이상의 4개 등급으로 나누었다. 수형자 가정의 가구 총 수입액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형자 가족원들이 1년에 번 수입을 모두 합친 금액을 ‘1000만원 미만’부터 ‘5000만원 이상’까지 1000만원 단위로 6개의 등급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나이는 태어난 해를 물어서 측정하였다.

바. 전과

응답자인 수형자의 전과를 알아보기 위해 “귀하는 이번을 포함하여 모두 몇 회의 전과를 갖고 있습니까?”의 문항을 사용하여 ‘초범’부터 ‘5범 이상’까지 5개의 등급으로 측정하였다.

사. 자기통제력

자기통제력은 그래스미크와 그 동료들(Grasmick, Tittle, Bursik, and Arneklev, 1993)이 사용한 태도적 측정과 허쉬와 갓프레드슨(Hirschi and Gottfredson, 1993)이 선호한 행위적 측정을 통합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그래스미크 등이 제시한 자기통제력의 6가지 하위영역을 대표할 문항으로,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나는 일이 힘들고 복잡해지면 곧 포기한다,” “나는 지금당장 이익이 되면 나중에 손해를 보더라도 한다,” “나는 위험하고 짜릿한 활동을 즐긴다,” “나는 사람을 놀리거나 괴롭히는 일이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를 선정하였다. 여기에 추가할 행위적 측정을 위해 “귀하는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 담배를 피웠습니까?”와 “(피웠다면) 담배를 피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의 조건부 질문과 “귀하는 교도소에 들어오기 전에 술을 마셨습니까?”와 “(마셨다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 입니까?”의 조건부 질문을 선정하였다. 음주와 흡연은 낮은 자기통제력을 나타내는 행위적 지표이고 특히 이른 나이에 시작할수록 낮은 자기통제력을 나타낸다고 보아 각 쌍의 조건부 질문에 대한 응답을 ‘13세 이전부터 사용 시작’부터 ‘사용하지 않았다’까지 7개의 등급으로 나누었다. 태도적 측정문항 6개와

행위적 측정문항 2개를 합하여 모두 8개의 문항으로 자기통제력 지수를 구성하였다 (Cronbach alpha 값: .76). 이 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수형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분포와 평균은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2> 응답자의 성별, 교육, 가구 총수입, 가족접견횟수, 수형자 친구유무, 전과의 분포 (N=359)

변수	내용	빈도	백분율
성별	0. 여자	56	15,6
	1. 남자	303	84,4
교육	1. 무학, 초등학교 중퇴, 졸업	35	9,9
	2. 중학교 중퇴, 졸업	62	17,6
	3. 고등학교 중퇴, 졸업	190	54,0
	4. 초급대학 중퇴, 졸업 이상	65	18,5
가구 총 수입	1. 1000만원 미만	90	27,5
	2. 1000 - 2000만원 미만	82	25,1
	3. 2000 - 3000만원 미만	46	14,1
	4. 3000 - 4000만원 미만	42	12,8
	5. 4000 - 5000만원 미만	67	20,5
	6. 5000만원 이상		
가족접견횟수	0. 0번	41	11,4
	1. 1번	44	12,3
	2. 2번	29	8,1
	3. 3번	60	16,7
	4. 4번	17	4,7
	5. 5번 이상	168	46,8
친한 동료 수형자 유무	0. 없다	141	39,3
	1. 있다	218	60,7
전과	1. 1범	151	43,3
	2. 2범	92	26,4
	3. 3범	49	14,0
	4. 4범	21	6,0
	5. 5범 이상	36	10,3

〈표 3〉 규율위반, 이번 범죄로 인한 복역기간, 나이, 교도소화 요인,
자기통제력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

변수	평균	표준편차	범위
교도소/관에 대한한 규율위반*	0.84	1.26	0 ~ 7
동료나 자신을 대상으로 한 규율위반*	0.12	0.49	0 ~ 4
이번 범죄로 인한 복역기간	44.46	59.81	2 ~ 367
나이	36.78	10.14	19 ~ 67
수형자 단결*	3.51	1.55	2 ~ 8
교도관/소 대항*	7.37	2.08	3 ~ 12
통상적 가치 부정*	4.83	1.92	3 ~ 11
자기통제력*	25.44	4.00	11.5 ~ 32

* 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범위는 각 변수의 지표들의 단순합산을 기초로 산출됨

<표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사용된 수형자의 84.4%가 남자, 15.6%는 여자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인 수형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중퇴 혹은 졸업이 54%로 가장 많았고 그 이상의 학력이 18.5%, 그 이하의 학력이 27.5%로 나타나 일반인과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수형자 가정의 총 수입액은 1000만원 미만인 27.5%로 가장 빈도가 높고, 그 뒤를 이어 1000-2000만원 미만인 25.1%로 연수입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과반을 넘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수형자가 지난 3개월 사이에 가족접견을 5번 이상 한 경우가 46.8%로 가장 많았지만 11.4%의 수형자는 단 한 번도 가족면회가 없었다. 가족과의 관계유지 외에 시설 안에서의 인간관계를 살펴보니, 교도소 안에 터놓고 이야기 하는 동료 수형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7%이다. 응답자의 전과는 초범이 43.3%로 가장 빈도가 높고 다음으로 2범(26.4%), 3범(14.0%)의 순으로 나타나서 범죄백서(2005)에 발표된 2004년 수형자 통계치와 대략적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표 3>을 통해서 응답자인 수형자의 평균 나이가 36.8세이고 이번 범죄로 인한 복역기간은 평균 3년 8개월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도소화라는 재사회화가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기간임을 알 수 있다. 수형자들이 교도소화의 하위영역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는 교도관이나 교도소에 대항, 수형자 단결, 통상적 가치의 부정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형자들의 자기통제력 평균값은 25.4이고 왜도값이 -.56이어서 정상분포와 비교하면 낮은 자기통제력 쪽에 극단치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자기통제력의 분포에 대한 이론적 가정과 일치한다(Hirschi and Gottfredson, 1993). 마지막으로 이들이 지난 6개월 동안 교도소나 교도관에 대항하여 위반한 규율이 동료나 자신을 대상으로 한 위반보다 더 빈번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수형자의 교도소 규율위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수	교도소/관에 대한 위반		동료나 자신에 대한 위반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성별	.02	-.03	.04	.02
교육	.09	.11	-.04	-.03
가구 총 수입	.03	.07	.05	.04
가족 접견 횟수	-.03	-.02	-.20**	-.16*
이번 범죄로 인한 복역기간	.13*	.12	-.06	-.08
친한 동료수형자 유무	.03	.02	-.11	-.10
나이	-.07	.01	-.11	-.01
전과	.17**	.11	.02	-.09
수형자 단결	.11	.09	.14*	.11
교도관/소 대항	.10	.07	.02	-.00
통상적 가치 부정	.15*	.11	.02	-.04
자기통제력		-.28***		-.25***
R ²	.12	.18	.11	.14
F비	3.56***	4.54***	3.19***	3.28***
사례수	292	266	292	266

*: p<0.05, **: p<0.01, ***: p<0.001

note: 위에 제시된 회귀계수는 표준회귀계수(베타값)임.

수형자의 교도소 내 규율위반에 대해 교도소화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의 관점에서 각기 도출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교도소화가 교도소나 교도관에 대항하는 수형자의 규율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표 4>의 모델 1을 보면, 분석에 사용된 11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이번 범죄로 인한

복역기간($\beta=.13$, $p<.05$), 전과($\beta=.17$, $p<.01$)와 통상적 가치부정이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난다. 수형자의 복역기간이 길수록 또한 수형자의 전과가 많을수록 교도소나 교도관에 대한 규율위반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교도소화를 나타내는 하위영역 중에서는 통상적 가치 부정만이 유의한 영향($\beta=.15$, $p<.05$)을 미쳐서 수형자가 통상적 가치를 부정할수록 교도소나 교도관에 대한 규율위반이 높게 나타났다. 모델 1에 수형자의 자기통제력을 추가해서 분석하자 이번 범죄로 인한 복역기간, 전과와 통상적 가치부정은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12개의 독립변수 중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통제력으로 수형자의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교도소나 교도관에 대한 위반을 하기 쉬운 것을 알 수 있다($\beta=-.28$, $p<.001$). 모델 1의 결정계수는 0.12이고 자기통제력이 추가된 모델 2의 결정계수는 0.18로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를 주요 독립변수 위주로 정리해보면, 모델 1에서는 교도소화의 하위영역 가운데 통상적 가치부정만이 교도소나 교도관에 대한 수형자의 위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모델 2에서 자기통제력이 추가되면 통상적 가치부정은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고 수형자의 자기통제력만이 이론이 예측한 대로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다음으로 교도소화가 동료나 자신을 대상으로 한 수형자의 규율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표 4>의 모델 3을 보면, 가족접견횟수와 수형자 단결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수형자의 가족접견횟수가 많을수록 동료나 자신에 대한 위반이 적었다($\beta=-.20$, $p<.01$). 교도소화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수형자 단결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수형자 단결을 지지할수록 동료나 자신을 대상으로 한 위반이 높게 나타났다($\beta=.14$, $p<.05$). 그러나 이것은 교도소화이론이 예측했던 부(-)적 방향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모델 3에 수형자의 자기통제력을 추가하자 수형자 단결은 통계적 유의성을 상실하였다. 모델 4를 보면, 가족접견횟수와 자기통제력만이 동료나 자신을 대상으로 한 위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결국, 가족접견횟수가 많을수록($\beta=-.16$, $p<.05$), 자기통제력이 높을수록($\beta=-.25$, $p<.001$) 각기 동료나 자신에 대한 위반이 낮게 나타났다. 가족접견횟수가 규율위반에 미치는 영향은 교도소화이론과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각기 설명할 수 있다. 수형자들은 구금으로 인하여 가족, 친척, 친구로부터 절연되지만 이들의 교도소 방문이나

편지는 수형자들의 고립을 완화시켜 교도소화 수준을 낮추고 그 결과로 규율위반도 낮춘다는 설명이 가능하다(Sykes, 1958: p.65).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 역시 가족접견횟수가 많을수록 수형자와 가족간의 애착이 유지되어 수형자의 규율위반이 줄어든다고 설명할 수 있다. 모델 3의 R^2 값은 .11이고 자기통제력이 추가되면서 모델 4의 R^2 값은 .14으로 조금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를 주요 독립변수 위주로 정리해보면, 동료나 자신을 대상으로 한 수형자의 규율위반에서 교도소화의 하위영역 가운데 수형자 단결만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으나 교도소화이론이 예측했던 것과 역의 관계가 나타났다. 자기통제력이 추가된 모델 4에서는 교도소화의 하위영역 중에서 그 어느 것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에 자기통제력은 이론이 예측한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수형자의 규율위반을 교도소화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을 적용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수형자의 규율위반에 대한 교도소화의 설명은 경험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도소화이론은 수형자의 교도소화 수준이 높을수록 수형자들은 교도소 복역 중에 교도소나 교도관에 대립하여 교도소 내부에서 부정행위와 폭력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교도소화의 3가지 하위영역 가운데 ‘통상적 가치부정’만이 이론이 예측한 방향에서 영향을 미쳤지만 수형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분석에 추가되면서 ‘통상적 가치부정’이 갖던 유의성이 사라져 버려서 가설 1은 경험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교도소화이론은 또한 수형자의 교도소화 수준이 높을수록 교도소 복역 중에 자기 자신이나 동료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유해행위는 적게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교도소화의 3가지 하위영역 가운데 ‘수형자 단결’만이 이론이 예측한 것과 역의 방향에서 영향을 미쳤고 수형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분석에 추가되면서 ‘수형자 단결’이 갖던 유의성이 사라져 버려 가설 2도 경험적 지지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러한 이번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겠

다. 자료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대략적인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고, 2004년도 공식통계와 비교해 볼 때 표본자료에 포함된 수형자의 연령과 전과가 모집단과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공식통계치보다 여성수형자의 비율이 높고 교육수준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범직백서, 2005).

이 논문의 분석결과를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수형자들이 구금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동료 수형자들과 상호원조, 충성심, 애정과 존경으로 단결하고 교도관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립을 시도하며 교도소 생활을 할 것이라는 집합적(collectivistic) 대처는 본 연구에 의해서 지지되지 못했다. 수형자들이 만든 반문화를 중심으로 조직화되어 교도소 생활의 어려움을 집합적으로 극복한다는 하위문화이론 혹은 학습이론적 설명이 경험적 지지를 받지 못한 셈이다. 이와 달리 수형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료 수형자를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개별적(individualistic) 대처가 더 현실적인 설명으로 다가온다. 싸이크스(1958)도 수형자 집단은 다양한 인종과 사회적 분열로 인해 집단행동을 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실제로 그가 관찰한 뉴저지 교도소의 수형자들은 높은 수준의 조직화를 이룬 적이 없다고 보았다. 수형자 집단에서 동료 수형자에 대한 충성은 찾기 어렵다는 선행연구도 맥을 같이한다(Zingraff, 1975). 폴락(Pollock, 1997)도 본 연구와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교도소화가 그리고 있는 영웅적인 이미지를 벗겨내고 나면 수형자들의 하위문화인 교도소화는 서로간의 지지적인 체계라기보다 차라리 강압적인 체계로 드러난다. ...수형자 규범의 핵심 교의는 수형자간의 충성이고 밀고자는 경멸의 대상이 되지만 실제로는 많은 밀고가 이루어진다. 결국 응집력 있는 하위문화로서의 교도소화는 비현실적이고 교도소는 서로 고립된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약육강식이 횡행하는 곳이다(p.246).

수형자들의 규율위반을 이들의 개별적 대처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면 개별 수형자마다 차등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구지연능력에 따라서 위반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서 수형자의 규율위반에 대한 자기통제이론의 설명은 경험적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기통제이론은 수형자의 자기

통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손쉽게 즉각적인 욕구충족과 해소를 위해 교도관에 대항하거나 교도소가 부과하는 규정을 위반하기 쉬울 것으로 예측한 가설 3은 경험적인 지지를 얻었다. 또한 수형자의 자기통제력 수준이 낮을수록 고통과 좌절을 참지 못해서 자기 자신을 훼손하거나 동료 수형자들에게 속임수와 완력을 행사하기 쉬울 것으로 예측한 가설 4도 경험적 지지를 얻어 자기통제이론은 두 가지 형태의 규율위반을 모두 일관성 있게 설명하였다. 자기통제이론은 수형자의 교도소 규율위반도 설명한다는 사실이 경험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이론이 주장한 다능성(versatility) 주장도 지지를 얻었다.

교도소화이론은 미국에서 낮은 경험적 타당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본 연구를 통해서도 같은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국내자료를 이용한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교도소화의 주장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는가? 경험적 타당도가 낮게 나오는 이론을 살리기 위해서 타당도가 높은 다른 이론의 요인을 빌려와 통합하는 것이 해법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이론의 설명요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될수록 교도소화이론의 핵심은 약해질 뿐만 아니라 빌려온 이론이 갖는 기본가정이 교도소화이론과 충돌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 예컨대, 교도소화이론과 자기통제이론은 각기 대립적인 기본가정들 위에 구성되어 있다. 서로 상충하는 가정 위에서 구성된 요인들을 통합하기보다 대립적인 이론검증을 통해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론을 퇴출시키는 방식이 범죄이론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제안해 본다.

이번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교정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면, 교도소화이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직화된 수형자집단을 상정하여 대책을 수립하기보다 다른 수형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구애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여 교도관과 동료수형자를 대상으로 규율을 위반하기 쉬운 위험한 수형자를 파악하고 관리해 나가는 방법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는 수형자를 파악하고 관리하여 교도소가 약육강식의 각축장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민수홍. 2009a. “Donald Clemmer의 교도소화 이론에 대한 재해석과 경험적 검증”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pp. 1103-1123.
- 민수홍. 2009b. "수형자의 교도소내 인간관계와 프로그램 참여: 교도소화 대 사회통제이론의 경합" 형사정책 제21권 제1호. pp.191-213.
- 범죄백서. 2005. 법무연수원.
- 조병인, 원혜옥, 민수홍, 이경재. 2004. 『수용자 외부교통 확대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옥경, 2010. “교도소화의 선행요인과 효과에 대한 연구: 수형자의 행동규범과 규율위반을 중심으로” 한국범죄심리연구 제6권 제1호. pp.145-174.

<외국문헌>

- Akers, R. and C. Sellers/민수홍, 박기석, 박강우, 기광도, 전영실, 최병각 역. 2011출간에 정[2009]. 「범죄학 이론」 제5판, 나남출판.
- Clemmer, D. 1958, The Prison Community. New York: Rinehart.
- Cohen, A. 1955. Delinquent Boys. Glencoe, IL: Free Press.
- Gillespie, W. 2003. Prisonization: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Factors Affecting Inmate Conduct. New York: LFB Scholarly Publishing LLC.
- Gottfredson, M and T. Hirschi,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Palo Alto, CA: Stanford Univ. Press.
- Grasmick, H., C. Tittle, R. Bursik, and B. Arneklev.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5-29.
- Hawkins, G. 1976. The Prison Policy and Practi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CA.: Univ. of California Press.

- Hirschi, T. 1979. "Separate and Unequal is Better."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16:34-38.
- Hirschi, T. and M. Gottfredson. 1993. "Commentary: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Crime and Delinquency* 30:47-54.
- Hobbes, T. 1958[1651]. *Leviathan* Parts I and II. New York: The Bobbs-Merrill Co, Inc.
- Ohlin, L. 1956. *Sociology and the Field of Corrections*. New York: Russell Sage.
- Pollock, J. 1997. *Prisons: Today and Tomorrow*. Gaithersburg, Maryland: Aspen Publishers, Inc.
- Sutherland, E. 1937. *The Professional Thief*.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Sykes, G. 1958. *The Society of Captives: A Study of a Maximum Security Pris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 Press.
- Sykes, G. and S. Messinger. 1960. "The Inmate Social System," in *Theoretical Studies in the Social Organization of the Prison*. New York: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Pamphlet.
- Wheeler, S. 1961. "Socialization in Correctional Commun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6:679-712.
- Zingraff, M. 1975. "Prisonization as an Inhibitor of Effective Resocialization." *Criminology* 13:366-388.

Prison Inmates' Rule-violations at Prison :

Prisonization and its Reinterpretation based on Self-control Theory

Min, Suh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inmates' prison rule-violations from the theoretical competition between prisonization and self-control theory. According to Sykes(1958), inmates' reaction to the pain of prison can be double-edged. One is exemplified prisonization theory and the other can be reinterpreted from the perspective of self-control theory. Prisonization theory argues that inmates bind themselves to their fellow prisoners with ties of mutual aid, loyalty, affection, and respect, firmly standing in opposition to the officials; thereby, it assumes inmates' rule-violations to be a "collectivistic" reaction. On the other hand, self-control theory argues that inmates with lower level of self-control are, in their pursuit of instant and easy gratification, more likely to afflict not only prison officials but also fellow inmates; thereby it assumes inmates' rule-violation to be an "individualistic" reaction. The overall research findings support claims of self-control theory, while claims of prisonization are not empirically supported.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about recent integrative efforts to enhance empirical validity of prisonization theory.

❖ Key words : inmate, prison rule violation, prisonization, self-control,

투고일 : 4월 13일 / 심사(수정)일 : 6월 15일 / 게재확정일 : 6월 15일
--

* Associate Professor, Ph. D. in Sociology, College of Social Science, Kyonggi University

